Sema EMERGING ARTISTS - GURATORS 2021

목차		CONTENTS	
작가		Artists	
전보배	9	Jeon Bobae	9
이재석	41	Lee Jaeseok	41
이은솔	75	Lee Eunsol	75
이현수	105	Lee Hyunsoo	105
정수정	139	Jung Sujung	139
최모민	173	Choi Momin	173
김지영	207	Kim Jiyeong	207
기획자		Curators	
이소라	229	Lee Sora	229
권정현	261	Kwon Junghyun	261
작가 - 기획자 약력	297	Artists - Curator's CV	297

서울시립미술관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신진미술인의 다양하고 도전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전시 기획자로까지 지원의 폭을 확장하면서 현재까지 총 258명의 작가와 기획자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매년 선발된 신진미술인들은 전시구현을 위한 제반비용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미술관 분관 중 SeMA창고, SeMA벙커와 같이 공간의 특성이 뚜렷한 곳을 전시장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지원방식의 입체화를 고민하면서 '1:1 매칭 큐레이터'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신진미술인과 매칭된 미술관 큐레이터는 평론글을 생산하거나 작품설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진미술인의 전시 준비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ince 2008, Seoul Museum of Art has been supporting the diverse and challenging creative practices of up-and-coming artists and curators through its Emerging Artists & Curators
Supporting Program. Especially since 2016 it has furthered its scope of support to the emerging curators as well. The total number of artists and curators who have received support from this program reaches up to 258 until today. Each year, the selected artists and curators get an opportunity to exhibit at SeMA Storage and SeMA Bunker. To further enhance the support, SeMA connects museum curators one by one with the emerging artists and curators to collaborate in preparing the exhibition.





206 207

«싱잉노즈» 2021.10.16−11.6 오퍼센트

> 사진: 우에타 지로 번역: 최순영

Singing Nose October 16-November 6, 2021 5 percent

Photograph: Ueta Jiro Translation: Choi Soonyoung

숙이 노래하게

Let the Breath Sing

유선, 다이애나랩

Yousun, dianalab

휘파람이 정교한 바람의 말하기라면 콧노래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흥얼거림에 가깝다. 휘파람은 자주 대상을 가진다. 멀리 있는 개나 사람을 부를 때처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한다. 바람을 조절해 정확한 음정을 내는 것은, 대부분의 악기 연주가 그렇듯 자 기 혼자 듣기 위해서일 때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 일 때가 많다. 어느 정도 기술도 필요하다. 세상에는 휘파람을 전혀 불 줄 모르는 사람들과 멋진 휘파람을 불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아 무리 연습 해도 휘파람을 불 수가 없는 사람은, 길에서 몇 음절의 휘 파람 소리만 들려도 감탄하며 돌아보게 된다.

콧노래는 다르다. 일단 입을 다물어야 한다. 흥얼거린다는 말 의 사전적 정의에는 '흥에 겨워 입 속으로 노래를 부른다' 뿐 아니라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입 속으로 한다'도 있다. 입을 다물고 부 르는 노래는 누군가에게 제대로 가 닿아야 한다는 목적이 없을 때 주로 나온다. 그것은 말을 하는 노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 지 못해도 괜찮다. 원곡이 뭐였는지, 새롭게 만든 것인지, 자작곡이 라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 따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르다 쉽게 달라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결말을 향해 간다. 코로 나오는 숨 에 실리는 멜로디는 애초에 누구를 부를 만큼 큰 소리가 될 수 없고, 연습한다고 기술적으로 더 훌륭한 것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휘파람 에는 고수나 달인이 있을 수 있지만 콧노래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 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다문 입 속에서 무심히 코로 나와 스스로 를 향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김지영(109)은 다른 이들의 콧 노래를 모으기 시작했다. 물물교환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서울 시민 40여 명의 콧노래를 수집했다. 그것들은 지난 겨울 퍼포 먼스 ‹콧-노래 산책›에서 작은 깃발이 되었다. 콧노래를 시각 이미 지로 만든 자수 드로잉이 박힌 깃발에 사운드 장치를 달아 콧노래 가 나오게 했다. 관객들은 그 깃발을 하나씩 들고 눈 덮인 북한산을 걸었다. 깃발에서 나오는 콧노래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따라해 보거나, 상관없이 자기의 콧노래를 부르거나 하면서 움직였다. 타 인의 콧노래와 함께 이동하는 경험이 중요했던 〈콧-노래 산책〉과는 다르게, 전시 «싱잉 노즈»에서는 고정된 장소에서 좀 더 많은 이들 의 개별 콧노래와 관람객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에 집중한다.

김지영(109)은 소리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한 다. "소리라는 것이 공기를 만지는 것 같은, 촉각적인 것이라는 생 각이 들어요. 또 콧노래의 모양, 콧노래들끼리 만나는 순간을 시각 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재미가 있었고요." 그는 소리를 내고―듣는 행위에, 진동을 만들고一(촉각적으로)느끼는 행위와, 시각 이미지 를 그리고 - 보는 행위를 교차시킨다. 그는 콧노래가 가지는 특수 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에게서 나와, 나를 향하는 노래. 그러나 다문 입 속에서 내는 그 소리는 온전히 귀를 향하고 있

If whistling is likened to an elaborate articulation of wind, humming is more akin to spontaneous murmuring. Whistling often has an object. It is also used with a clear objective in mind, such as calling a dog or a person from a distance. Manipulating the wind to hit an accurate note, like most instrumental performances, is meant, in many cases, for others to listen to rather than to play for oneself. It also requires a certain degree of technique. In this world, there are people who can whistle beautifully and those who cannot whistle at all. Someone who has failed to acquire the skill, however hard they may have tried, will turn their head in appreciation even at a few bars of a tune whistled on the street.

Humming is different. First, you have to close your mouth. Humming can be defined as "singing out of joy behind closed lips," but can also mean "murmuring in one's mouth something indiscernible to others." Songs produced through closed lips usually indicate the absence of a clear intent to reach someone else. They are not songs with words. It is alright if someone else does not understand. Whether an original song exists or it is improvised on the spot, the level of perfection attained matters little to none. It can easily shift to something else over the course of humming as it progresses toward an unknown ending. Melodies conveyed through your nose cannot, from the onset, be as loud as calling out to someone, nor can they be technically perfected through practice. A virtuoso or expert in whistling can exist, but no such thing is possible in the realm of humming. Humming emerges carelessly from behind closed lips through the nose and towards oneself.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Kim Jiyeong (a.k.a. 109) has collected the sounds of other people's humming. She has compiled the humming of about forty people through barter or by paying them in proportion to the length of their contribution. In last winter's performance A Humming Walk, that humming was transformed into small flags. She created embroidered flags that visualized humming into images, attached to which were sound devices that played the humming sound. Participants walked the snow-covered trails of Bukhansan Mountain, holding the flags. As they walked, they variously listened to the humming emitted by the flags, hummed along with it, or just hummed something completely unrelated to the sound. Unlike A Humming Walk, in which the experience of moving while carrying the sound of others' humming was paramount, the exhibition Singing Nose concentrates on the individual humming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래이지만 청각만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입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시에 스스로를 울리는 진동, 귀가 아닌 피 부와 근육으로 느껴지는 어떤 간질간질함이 있다. 내가 만든 소리 가 나를 몸 안에서 어루만지는 것 같은 기분. 어떤 감각의 발신과 수 신 사이에 거리가 아주 좁혀져 '나의 몸' 혹은 '내 몸의 어느 기관 하 나'가 되어버릴 때, 어떤 감각은 다른 감각과 경계가 흐릿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의 경우, 소리라는 감각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닌 피부로 느껴서 아는 것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그것을 콧노래가 가 진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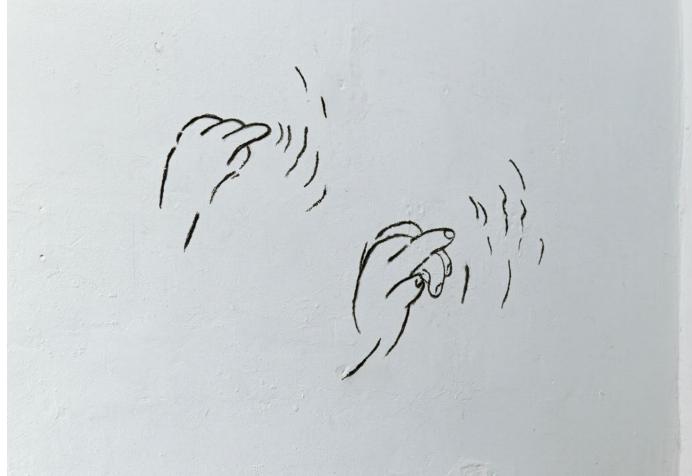
무심하게 흘러가는 콧노래가 가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각, 노래이지만 노래라고 하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 잠깐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어떤 진동은 왠지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개 인과 그를 둘러싼 일상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 여유롭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바쁘거나 슬플 때는 아무도 콧노래를 부르 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몸 안쪽으로부터 그를 토닥이고 있다. 관람객이 전시장의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아래에서 위로, 물결무늬를 그리면서 대각선으로 흘러가는 콧노래들에 둘러 싸여 감각하는 것은 모르는 이의 내밀한 순간, 그가 스스로를 위해 숨으로 노래를 만드는 순간이다. 노래로 변한 숨은 귀로 들을 수 있 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보거나 입술에 닿아 만질 수 있 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숨의 감각들은 관람객이 스스로의 숨으로 노래하게 한다.

of more people and on the diverse sensations felt by the visitors within a fixed space.

Kim Jiyeong (109) discusses the process of rendering sound visible or tangible: "It occurred to me that sound was something tactile, like touching the air. I also had fun visually imagining the form of humming, or the moments that one strand of humming met another." She interweaves the act of making sound with that of listening to sound; that of creating vibrations with feeling vibrations (in a tactile manner); and that of drawing images with viewing images. It would appear that she has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particularity of humming—a song that emerges from oneself even as it is directed towards oneself. However, sound produced within a closed mouth is not necessarily directed toward the ears. It is a song but is not limited only to the auditory senses. A sound produced inside one's mouth that is simultaneously a vibration of oneself possesses a sort of tickling sensation felt not by way of the ears, but through skin and muscle. It feels as though the sound that I have made is soothing myself from within.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some senses is minimized to the point that those senses become part of "my body" or "an organ of my body," those senses blur the boundaries of other senses. For instance, the nose thus creates sensations of sound that can not only be heard but also felt through the skin. The artist posits this as humming possessing the sense of "consoling oneself as if someone was patting me on the shoulder."

The indescribable sense of humming that comes forth heedlessly, the sense of a song that chafes awkwardly at the bounds of that designation, or a vibration generated for oneself only momentarily—all of these bring to mind the individual person humming for no particular reason and the daily landscape surrounding that person. Someone somewhere is humming in an easygoing manner—for no one really hums when they are busy or sad. And that humming is patting the person consolingly from the inside. What the visitors at the exhibition sense, surrounded as they are by the humming that flows diagonally as it draws wavy patterns downward, sideways, and upward, is the intimate moment of a stranger, the moment that the person created a song for themself with their own breath. Breath that is transformed into song can be heard by ears, smelled by noses, seen by eyes, and touched by lips. And those sensations of that breath will draw visitors to sing with their own breath.

Sema EMERGING ARTISTS - GURATORS 2021













Sema Emerging Artists • Curators 2021







KIM JI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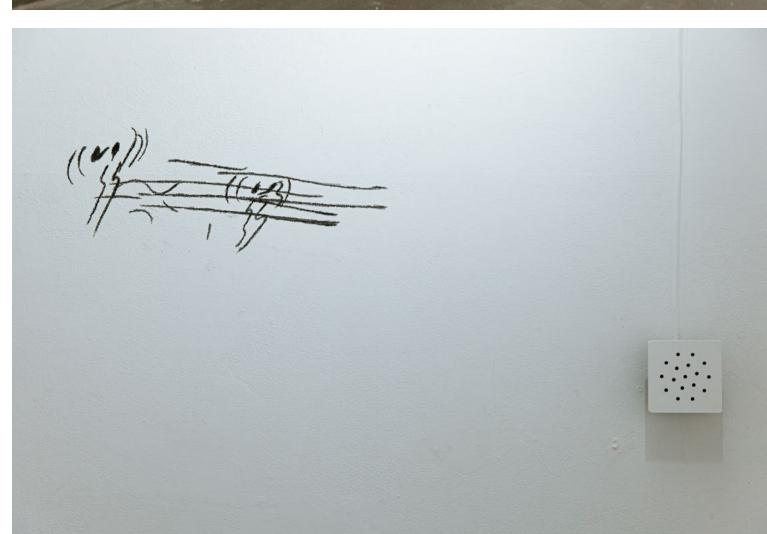
好处的 是工的是你好



218 219











김지영 학력 ____ 『집, 방, 세입자』, □□□ ____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예술사 2015 2014 평면조형 졸업 개인전 «싱잉 노즈», 오퍼센트, 서울 2021 «flag», 돈의문 박물관마을, 서울 2018 단체전 2019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 2016 «알아서 조심», Gallery 175, 서울 2013 퍼포먼스 2021 〈므브프一진동하는 몸, 촉각적인 순간, 교차하는 주파수〉, 성북마을극장, 서울 〈콧-노래 산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20 2020-21 〈환대의 조각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공동기획(다이애나랩, 김지영) 〈퍼레이드 진진진〉,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9 공동기획(다이애나랩, 김지영) Kim Jiyeong Education 2014 MFA, Painting,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olo Exhibitions 2021 Singing Nose, 5 percent, Seoul Flag, Donuimun Museum Village, Seoul 2018 Group Exhibitions 2019 Nothing Twice,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NERIRI KIRURU HARARA,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6 2013 Watch Yourself, Gallery175, Seoul Performance 2021 M-B-P: Vibrating Body, Tactile Moments, Intersecting Frequencies, Seongbuk Village Theater, Seoul 2020 A Humming Walk, Arts Council Korea, Seoul **Curatorial Projects** 2020-21 Fragments of Hospitality, Arts Council Korea, Seoul, co-curated with diana lab 2019 Parade Zine Zin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co-curated with diana lab

Publication

2015

 $\overline{\text{House, Room, Tenant, }}\square\square$

CURATOR'S

Sema EMERGING ARTISTS - GURATORS 2021

주최·후원

서울시립미술관

후원

한국수출입은행

학예 총괄

김희진 학예연구부장

프로그램 총괄

고원석 전시과장

프로그램

이보배 학예연구사 서나임, 최서영 코디네이터

행정 지원

한문희, 성민관 주무관

교육홍보 총괄

봉만권 교육홍보과장

교육

김정아 학예연구사

호ㅂ

정지혜, 이성민, 이연미, 이은주 주무관 권지은 실무관, 이은진 코디네이터

행정 및 기술지원 총괄

이영순 총무과장

시설 유지 총괄

신현성 주무관

SeMA창고

김동범, 이호완 주무관

SeMA벙커

이진섭, 천성욱 주무관

공공안전관

권병오, 권은지, 김시종, 박병태, 이대경, 이용석, 임병옥, 조인군

영상

화양사진관

VR

크로노토프

디자인

신신, 인현진

편집

이보배, 서나임, 이규식

인쇄·제책

세걸음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백지숙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02-2124-8800 sema.seoul.go.kr

비매포

ISBN 979-11-88619-85-6

©2021 서울시립미술관

본 단행본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표기가 없는 모든 이미지는 작가 및 소유인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이미지와 글의 저작권은 작가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Organized and Supported by

Seoul Museum of Art

Support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Overall Supervisor

Heejin Kim, Director of Curatorial Bureau

Program Supervisor

Wonseok Koh, Head of Exhibition Division

Curator in Charge of Program

Bo Bae Lee

Program Coordinators

Naim Seo, Choi Seoyoung

Administrative Support

Han Moon Hee, Seong Min-gwan

Education and PR Supervisor

Bong Man Kwon, Head of Education and PR Division

Curator in Charge of Education

Jeongah Kim

PR Managers

Jeong Jihye, Seongmin Lee, Lee Eunju, Lee Yeonmi

PR Coordinators

Jieun Kwon, Lee Eun Jin

Administration Supervisor

Lee Young Soon, Head of Administration Division

Museum Maintenance Manager

Shin Hyeon Seong

SeMA Storage

Kim Dongbeom, Lee Hohwan

SeMA Bunker

Lee Jinseob, Cheon Seongwook

Securit

Kwon Byung O, Kwon Eun Ji, Kim Si Jong, Paik Beung Tae, Lee Dae Kyung, Lee Young Suk, Lim Byung Ok, Cho In Koon

Film

HwaYang Sajinguan

VR

Chronotope

Graphic Design

Shin Shin, Hyunjin In

Editors

Bo Bae Lee, Naim Seo, Gyusik Lee

Printing & Binding

Seguleum

Published on

December, 2021

Publisher

Beck Jee-sook

Published by

Seoul Museum of Art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04515, Korea +82-(0)2-2124-8800 sema.seoul.go.kr

Not for sale

ISBN 979-11-88619-85-6

©2021 Seoul Museum of Ar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Seoul Museum of Art. All images photographs without additional mark in this book are 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artists and each copyright holder. All images and texts are copyrighted by the artists and authors.



: emerging

